

中國 明代 服飾의 襟에 관한 研究

A Study on Seon(襟) of the Ming(明) Dynasty Costume

이 상 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Lee, Sang Eun
Dept. of Costume Design, Kunkuk Univ.

Abstract

Seon(襟) means a narrow cloth added to the edge of costume or cushion. At the beginning, Seon was originated to prevent from fraying warp of cloth or wearing out of cloth. However, with the progress of clothing culture, it is used to satisfy the human desire of decoration and enhance the function of costume.

The Seon appeared on costumes of Ming dynasty was simple compared to that of the period preceeding it. The position of Seon was mostly at neckline, end of sleeves and hemline. The width of Seon also was quite monotonous and lacks of varieties.

The patterns of Seon were limited to ax, cloud and dragon and cloud and chinese phoenix. And the colors used were also limited to four colors, namely Blue, Red Crimson and Black. In Ming dynasty, the same colors of Seon as those of the costume were more preferably used, while different colors of Seon were used in the previous era.

The reason why Seon in Ming dynasty show simple design and use the same colors as those of the costume was due to Ming dynasty's desire to represent and to enhance her castic political structure. The need for class distinction was expressed through the pattern rather than the colors of the costumes themselves.

While, in Ming dynasty, Bo(補) which was attached to the breast and the shoulders was used to represent the social class because it could be easily distinguished. In Ming dynasty, to stress Bo and to make Seon less conspicuous, Seon became simple and the colors of Seon were same as those of the costumes avoiding strong contrast in style and colors.

I. 序 論

襟이란 옷이나 방석의 가장자리에 덧대는 형질이며 緣이라고도 한다. 襟은 上衣에는 襟과 袍의 옷깃·깃·밑단(裾)·袖口에 사용되었고, 下衣에는 裳과 袴의 밑단에 사용되었다.

襟은 오래 전부터 동서양의 의복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의복 가장자리를 보존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생겨났으나 服飾

文化의 발달과 변천에 따라 服飾의 구성상 중심적인 요소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장식적인 방향으로, 구조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며, 또한 민족의 정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류에게 오래 전부터 사용된 襟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先行研究가 미진한 형편이다¹⁾.

中國 明代는 漢族의 禮儀를 회복하는 冠

服制度를 調整하였고 이러한 冠服制度는 우리나라의 冠服制度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러한 明代의 복식에 보인 襟에 관한 고찰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본 論文은 明代 服飾의 襟을 고찰함에 있어 그 역사적 배경과 襟에 대한 文獻的 고찰을 한 다음 이를 출판물에 나와 있는 유물을 자료로 하여 實證的인 분석을 하여 明代 服飾의 襟의 特徵을 살피고자 한다.

II. 明代以前 服飾의 襟

中國 服飾에서 襟은 殷王朝때부터 이미 實用的 단계를 넘어서서 裝飾美의 차원에서 옷깃·袖口·밑단 등에 사용되었고, 襟의 형태는 單純하고 不規則한 문양이 보인다. 襟의 너비는 殷時代에는 넓고 좁은 緣을 형성시켜 複襟을 이루고 있다. 楚墓에서 出土된 帛書의 襟은 옷소매 부분에 폭 넓은 襟을 사용하였다²⁾.

『禮記』에는 緣의 너비가 수치로 확정되었다³⁾. 秦俑에 나타난 襟의 너비는 3~4cm, 5~8cm이고, 옷에 따라 10cm 정도의 것도 있다⁴⁾.

秦王朝를 지나 漢王朝에 이르면 襟은 옷깃·袖口·밑단의 基本 襟 外에 二重襟·多重襟·V형 옷깃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襟이 등장한다. 漢王朝時代의 襟의 너비를 문헌에서 살펴보면 朝服 중 衣의 領緣의 幅은 二寸, 소매와 밑단의 緣幅은 一寸五分이었으며⁵⁾, 그 외 遺物에서 出土된 服飾에서 襟은 넓은 襟과 좁은 襟 등이 보이는데, 前 時期에 비하여 襟의 幅이 넓어져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襟紋樣이 다양하며 규칙적이다. 襟의 色相은 秦時代에는 服飾 全體의 바탕색과 襟의 色을 對比色으로 사용하였으며, 漢時代에는 朝服 中單의 襟色이 赤·黑色이 많았다. 青色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湖南長沙 馬王堆一號墓에서 출토된 男子服飾의 襟은 高洞색과 赭色이 사용되어 襟 自體의 色相이 다양해졌다. 漢王朝 時代의 襟은 中國服飾 襟의 原形을 보

여준다.

魏晉南北朝時代의 服飾은 옷깃과 袖口·밑단에 襟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복식에서 襟의 위치가 강조되었다. 遺物을 통하여 살펴보면 魏晉南北朝時代의 襟의 너비는 漢에 비하여 좁아진다.

魏晉南北朝時代의 문양은 皇帝의 冕服에서부터 일반의 복식에 이르기까지 襟이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었고, 唐草文 등 紋樣修飾이 襟 裝飾으로 크게 활용되었고, 특히 道教, 佛教 등의 성행으로 黻文, 연꽃, 忍冬 등의 문양이 襟 裝飾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⁶⁾. 魏晉南北朝時代의 襟의 色相은 女子服飾에서 袖口部分에 다른 색상의 貼袖를 덧붙여 襟의 효과를 살리고 있다⁷⁾.

唐王朝時代에는 옷깃·袖口·밑단 襟 이외에도 團領·半臂·翻領 등에까지 다양하고 성숙한 襟을 사용함으로써 中國服飾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襟의 형태가 나타났다⁸⁾. 唐王朝에서는 襟의 폭이 간단한 襟에서부터 상당한 넓이에 걸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⁹⁾. 襟 문양은 黻·龍·山·火·粉米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문양이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唐王朝는 우주관·인생관을 기초로 하여 여러 문양이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雙으로 문양을 넣었다¹⁰⁾. 唐王朝時代 襟의 특징은 色相의 다양성에 있다. 그 이전 시대에는 공식적인 색상이 기본이었지만 唐王朝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다¹¹⁾.

III. 明代 服飾의 襟

1. 服飾의 概觀

2)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1984), p. 24.

3) 『禮記』, 十三 玉藻, “...緣廣寸半”

4) 『秦始皇陵 兵馬俑坑 一號坑 發掘報告』, p. 99.

5) 『後漢書』志 第三十, 輿服志 下.

6) 中國 山東省 大同司馬金龍墓 出土 北魏漆畫屏風.

7) 敦煌 莫高窟 第 288窟 壁畫.

8) 『中國服飾五千年』, 學林出版, 1986, pp. 89~90 : 95~96.

9) 上揭書, p.78 : 175.

10) 上揭書, p.89 : 90 : 95.

11) 『敦煌 莫高窟 3卷』, p. 33 : 48 : 170.

『敦煌 莫高窟 4卷』, p. 171.

『中國歷代服飾大觀』, p. 79.

1) 柳孝順, 『古代服飾에 나타난 襟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李相恩, 『古代 韓·中 服飾의 襟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明太祖는 1368년 元王朝를 滅亡시키고 明王朝를 創建하자 蒙古族의 服飾과 言語에 대한 禁令을 내림과 동시에 “衣冠悉如唐制”의 詔書를 내렸다¹²⁾. 이는 建國 初 모든 制度가 未備한 狀態에서 취해진 一時的인 措置였다. 그 후 洪武 三年(1370년) 北方을 대체로 平定하고 皇帝, 后妃 文武官, 內臣과 士庶人의 冠服에 대하여 詳定하였으나 이로써 明王朝의 服飾이 完備된 것은 아니었다. 明王朝의 服制는 中國 本土를 완전히 統一하여 國威를 떨쳤던 洪武 二十六年(1393년)에 完備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理由는 그 때에 天子冕服, 皮弁服, 文武官 朝服, 祭服, 公服등의 制度가 詳定되었기 때문이다¹³⁾.

明王朝는 成祖 永樂帝에 이르러 積極의 對外政策으로 國土가 擴張되었고, 對內的으로 內政이 安定됨에 따라 服飾이 華麗하고 奢侈해졌는데, 永樂 三年에 내린 服制를 보면 金, 玉, 珍珠, 寶石의 裝飾이 洪武時代보다 훨씬 많고, 衣服에 있어서 織金紋樣과 刺繡의 사용도 훨씬 많아졌다. 예를 들자면 永樂時代 冕冠에 사용된 玉衡, 玉簪, 金飾과 袞袍의 織金, 刺繡 그리고 后妃들에 의하여 사용된 翠口圈, 托裏金口圈, 珠翠面花, 珠排還 등 裝飾物은 모두 洪武時代에는 없던 것들이었다¹⁴⁾.

이와 같이 永樂時代에 시작된 奢侈風은 그 후 正德, 嘉靖, 萬曆 등 皇帝를 거쳐 明王朝의 國勢가 점점 衰退하여 國庫 枯竭과 物資 不足으로 누차 奢侈團束令을 내렸음에도 그러한 奢侈風을 抑制할 수 없게 되었다.

2. 服飾種類

1) 天子服

天子服은 「明史」 輿服志에 袞冕服, 通天冠服, 皮弁服, 翼善冠服, 燕弁服 등 6종류가 기재되어 있다.

天地 宗廟 祭祀·正旦·冬至·冊立 등 큰 의식에 착용하는 袞服은 洪武 16年(1383) 服制에 의하면 十二章服으로서 玄衣에 日·月·星辰·山·龍·華蟲 등 六章을 수놓고 黃裳에는 宗彝·藻·火·粉米·黼 등 육장을 수 놓았다<圖 1>¹⁵⁾.

通天冠服은 洪武 元年(1368)에 郊廟省牲·

皇太子 帝王 冠婚醮戒에 착용하기로 정한 服制인데, 그 服은 絳紗袍이었다¹⁶⁾.

皮弁服은 洪武 二十六年(1393)에 朔望視朝·降詔降香·進表·四夷朝貢·外官朝覲 등의 예식에 착용하기로 정하여진 服制인데, 그 服은 絳紗袍로서 章文을 하지 아니하였다<圖 2>¹⁷⁾.

武弁服은 皇帝가 親征·遣將할 때 착용하는 服制로서 그 服은 靺衣靺裳이었다<圖 3>¹⁸⁾.

翼善冠服은 洪武 三年(1370)에 皇帝의 常服을 烏紗折角向上巾과 盤領袖袍로 정하였는데, 後에 烏紗折角向上巾의 형태가 「善」字와 비슷하여 翼善冠이라고 불리웠다¹⁹⁾.

燕弁服은 嘉靖 七年(1528)에 정하여진 服制로서 皇帝의 燕居服으로 착용되었는데 玄衣에 靑色緣을 둘렀다²⁰⁾

2) 皇后服

皇后服은 「明史」 輿服志에 禕衣·翟衣·霞帔·四·褙子·鞠衣·緣襖褙子 등이 기재되어 있다.

禕衣는 洪武 三年에 정하여진 禮服으로서 深靑色 바탕(上衣)에 赤質五色의 翟紋을 十二 등으로 나누어서 그려 넣은 것이다<圖 4>²¹⁾.

13) 上揭書, 卷 六十六 輿服 二, 卷 六十七 輿服 三.

14) 上揭書, 卷 六十六 輿服 二, 卷 六十七 輿服 三.

15) 「明史」, 卷 六十六 志 一.

16)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四.

17)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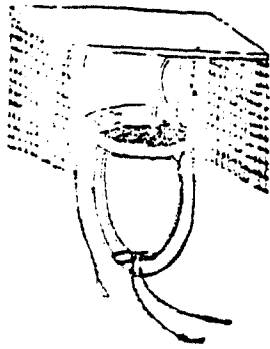
18)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五.

19)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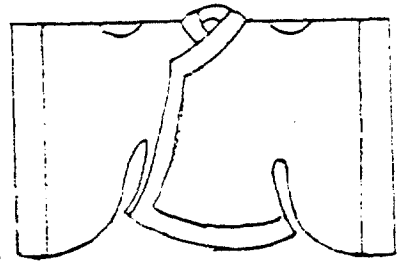
20)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六.

21)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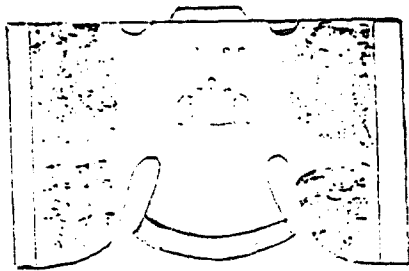
12) 「明史」 卷 二, 太祖本紀 洪武元年 二月 壬子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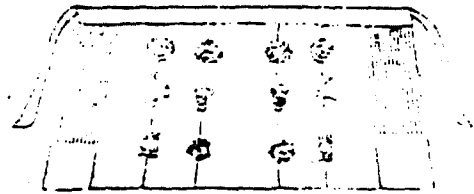
冕圖



冕衣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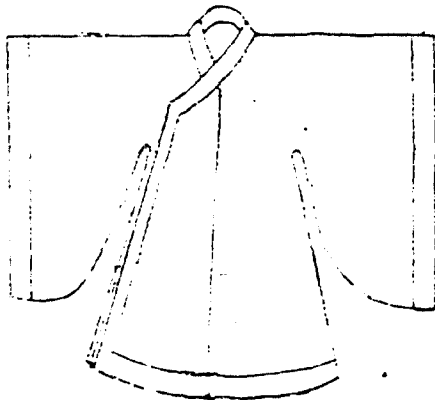


冕衣 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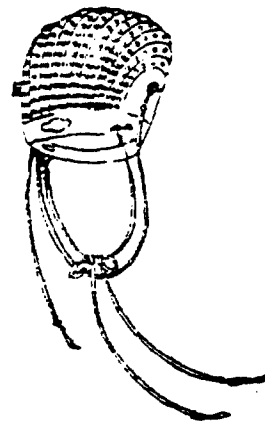


下裳圖

<圖 1> 衰冕服(出處: 大明會典, pp.1019~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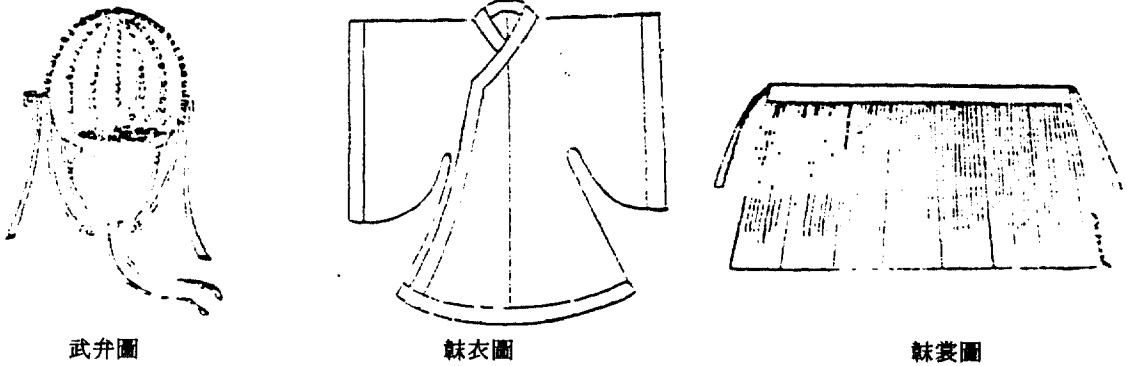


絳紗袍圖



皮弁圖

<圖 2> 皮弁服(出處: 大明會典, p.1023)



<圖 3> 武弁服(出處: 大明會典, p.1028)



<圖 4> 袷衣(出處: 大明會典, p.1034)

袷衣는 永樂 三年(1405)에 정하여진 禮服으로서 深青色 바탕(上衣)에 翟紋을 十二等으로 나누어 織成한 것이다²²⁾.

霞帔는 永樂 三年에 정하여진 常服으로서 深青色 바탕에 雲霞龍文을 織金한 褙子이다²³⁾.

四樣襖子는 永樂 三年에 정하여진 常服으로서 深青色 바탕에 圓龍文을 金繡한 褙子이다²⁴⁾.

鞠衣는 永樂 三年에 정하여진 常服으로서 紅色 바탕에 雲龍文을 앞뒤로 織金한 것이다²⁵⁾.

緣襖襖子는 永樂 三年에 정하여진 常服으로서 黃色 바탕에 紅色의 緣을 두르고 彩色雲龍文을 織金한 것이다²⁶⁾.

3) 皇妃服

「明史」輿服志에 翟衣·霞帔·褙子·鞠衣·緣襖襖子 등이 기재되어 있다²⁷⁾.

翟衣는 洪武 三年에 정하여진 禮服으로서

青色 바탕에 翟紋을 九等으로 나누어 수놓은 것이다²⁸⁾.

霞帔, 褙子, 鞠衣, 緣襖襖子는 永樂 三年에 정하여진 禮服으로서 霞帔는 深青色 바탕에 雲霞鳳文을 織金하였고²⁹⁾, 褙子(四樣襖子)는 桃花色 바탕에 圓鳳文을 金繡 하였으며³⁰⁾, 鞠衣는 青色 바탕에 鸞鳳雲文의 胸背를 하였으며³¹⁾, 緣襖襖子는 青色 바탕에 紅色의 緣을 둘러 雲鳳文을 織金하였다³²⁾.

皇妃의 常服은 洪武 三年에 鸞鳳을 金織한 諸色 單衫으로 정하였다가 洪武 四年에 眞紅大袖衣, 霞帔, 紅羅裙, 紅羅褙子 등으로 바꾸었다³³⁾.

4) 皇太子服

「明史」輿服志에 袞冕服·皮弁服·翼善冠服 등이 기재되어 있다³⁴⁾.

5) 皇太子妃服

永樂 三年에 翟衣를 禮服으로 정하여 深

23)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八.

24)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八.

25)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九.

26)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九.

27)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九.

28) 「大明會報」, 卷 六十 志 四十.

29) 上揭書, 卷 六十 志 四十.

30) 上揭書, 卷 六十 志 四十.

31) 上揭書, 卷 六十 志 四十.

32) 上揭書, 卷 六十 志 四十.

33) 上揭書, 卷 六十 志 四十一.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1978, p.214.

34) 「明史」, 卷 六十六 志 十.

22)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七.

靑色 바탕에 翟文을 九等으로 나누어 織成하였다35).

常服은 洪武 三年에 黃色을 제외한 諸色 團領衫으로 정하였다가 永樂 四年에 紅色 大衫에 深靑色 바탕에 織金한 霞紋을 착용하게 하였다36). 그 외에 桃花色 바탕에 團鳳文을 金繡한 四袴子, 靑色 바탕에 鸞鳳雲文의 胸背를 한 鞠衣, 靑色 바탕에 紅色의 緣을 두른 緣襖子, 紅色 바탕에 綠色의 緣을 두른 緣襖裙등이 착용되었다37).

6) 親王服

「明史」輿服志에 袞冕服·皮弁服·保和冠服 등이 기재되어 있다38)

保和冠服은 嘉靖 七年에 皇帝 燕弁冠服의 제도를 참작하여 만든 常服으로서 服은 靑色 바탕에 앞 뒤 각 龍補 한 개씩을 달았다.

7) 親王妃服

禮服은 洪武 三年에 翟衣로 정하여 靑色 바탕을 九等으로 나누어 翟文을 수놓았다39). 그러나 永樂 三年에 大紅色 大衫과 深靑色 바탕에 雲霞鳳文을 金繡한 霞紋을 착용하도록 하였고40), 그 외에 桃紅色 바탕에 團鳳文을 金繡한 四袴子, 靑色 바탕에 雲鳳文을 胸背한 鞠衣 등을 착용하였다41).

常服은 洪武 四年에 皇妃와 같게 하였다42).

8) 文武官 冠服

가. 朝服

洪武 二十六年에 정하여진 朝服은 梁冠에 赤羅衣·赤羅裳과 赤羅蔽膝로 되어 있는데, 衣·裳·蔽膝에 모두 靑色の 緣을 둘렀다43).

나. 祭服

洪武 二十六年에 정하여진 祭服은 靑羅衣·赤羅裳과 赤羅蔽膝로 되어 있는데, 衣·裳·中單에 모두 皂色の 緣을 둘렀다44).

다. 公服

洪武 二十六年에 정하여진 公服은 盤領右襟袍로서 袖寬이 三尺이었다.

品階에 따라 袍色과 紋樣(花樣)이 달랐다45).

라. 常服

洪武 三年에는 烏紗帽·團領衫·束帶로 정하였으나46), 洪武 二十四년에 이르러 團領衫에 補子를 더하여 品級를 구분하였다.

公·侯·駙馬·伯의 補는 麒麟·白澤의 문양을 수놓았고, 文官 一品은 仙鶴, 二品은 錦雞, 三品은 孔雀, 四品은 雲鴈, 五品은 白鵬, 六品은 鸞鷟, 七品은 鷄鶩, 八品은 黃鸝, 九品은 鶴鶩, 雜職官은 練鵲, 風憲官은 獬廌의 문양을 사용하였으며, 武官 一品·二品은 獅子, 三品·四品은 虎豹, 五品은 熊羆, 六品·七品은 彪, 八品은 犀牛, 九品은 海馬의 문양을 사용하였다47).

마. 忠靜冠服

明代 중·후기에 이르러 문무관들이 補子의 문양을 品級の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용하기에 이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嘉靖 七年(1528)에 만든 常服이다48).

服은 深靑色으로서 三品 以上이면 雲文을 넣었고, 四品 以下는 그냥 素色으로 착용하였다. 服의 둘레에 藍靑色の 緣을 둘렀고, 服의 前後에 本等 花樣 文樣의 補子로 장식하였다49).

9) 命婦服

洪武 二十四년에 禮服을 眞紅大袖衫에 深靑色の 霞紋과 褙子로 정하였고, 그 霞紋과 褙子の 文樣에 관하여 一·二品은 雲霞翟文을 金繡하고 三·四品은 雲霞孔雀文을 金繡하며, 五品은 雲霞鸞鷟文을 수놓고, 六·七品은 雲霞練鵲文을 수놓으며, 八·九品은 霞紋에 繡

36)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十二.

「大明會典」, 卷 六十 志 四十八.

37) 「大明會典」, 卷 六十 志 四十九.

38) 「明史」, 卷 六十六 志 十三.

39)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十三.

40)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十三.

41) 「大明會典」, 卷 六十 志 六十一.

42) 上揭書, 卷 六十 志 六十二.

43) 「明史」, 卷 六十七 志 一.

44) 上揭書, 卷 六十七 志 三.

45) 上揭書, 卷 六十七 志 三.

46) 上揭書, 卷 六十七 志 四.

47) 上揭書, 卷 六十七 志 五.

48) 上揭書, 卷 六十七 志 六.

“詭異之徒 競爲奇服以亂典章 乞更法古元端 別爲簡易之制 昭布天下 使貴賤有等

帝因服製 忠靜冠服團領 禮部.”

49) 上揭書, 卷 六十七 志 七.

35)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十二.

枝花文, 褙子에 摘枝團花文을 수놓게 하였다50). 命婦의 常服은 顔色團領衫으로 정하였다51).

10) 內臣 服飾

洪武 三年에 品級에 따라 朝服·公服을 착용하고 朝會를 행하게 하였다52). 朝服·公服의 形制는 文武官과 동일하였다.

常服으로 葵花胸背團領衫을 착용하였고, 無品者는 胸背花가 없는 團領衫을 착용하였다53). 그 외에 貼裏·曳撒·順褶·大褶·色衣·直身 등을 착용하였다.

永樂以後에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宦臣들은 황제로부터 몸판에 鱗·飛魚·斗牛의 모양을 화려하게 수놓은 鱗服·飛魚服·斗牛服을 賜與받아 착용하였는데54), 弘治 以後 이 奢侈한 服飾의 착용을 금하였으나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55).

11) 士庶人 一般 服飾

崇禎 末 황태자를 비롯한 황족들이 靑布棉襖, 紫花布衿衣, 白布巾, 藍布裙, 白布襪, 靑布鞋, 皂布巾 등 백성들의 옷차림을 하고 난을 피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피난할 때 착용한 복식이 明代 一般庶民들의 服飾이라고 할 수 있다56). 明代 士庶人들은 搭護·罩甲·直身·襖衫 등을 착용하였다.

搭護는 半臂와 같은 形制로서57) 소매없는 長襦보다 약간 긴 걸음이었는데, 搭護와 같은 形制의 의복이 士大夫나 軍兵騎 등이 착용하였을 때 "罩甲"이라고 불리웠다<圖 5>.



<圖 5> 罩甲

(出處: 沈宗文, 「中國古代的服飾研究」, p.466.)

直身은 道袍와 같이 넓고 길며, 上下衣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領에서 裳까지 이어져 있다58). 보통 盤領, 右衽長袖에 靑色の 緣을 들렀다.

襖衫은 玉色の 布絹으로 만든 士人의 巾服으로서 寬袖에 皂色の 緣을 들렀다59).

12) 士庶妻 一般服飾

洪武 三年에 열은 색(淺色)의 團衫을 착용하도록 하였다가 洪武 五年에 紫纁(靑紫色의 비단)에만 한하도록 하였고, 袍衫에는 紫, 綠, 桃紅 등 열은 색만 사용하게 하였다60).

士庶妻服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착용되었던 것은 團衫, 褙子, 比甲, 襖裙, 水田衣, 雲肩 등이 있었다<圖 6>.



<圖 6> 褙子

(出處: 「中國歷代服飾大觀」, p.165.)

51) 上揭書, 卷 六十一 志 三十四.

52) 「明史」, 卷 六十七 志 十四.

53) 上揭書, 卷 六十七 志 十四.

54) 上揭書, 卷 六十七 志 十四.

55) 上揭書, 卷 六十七 志 十五.

“弘治 元年 … 今內官 多乞鱗衣 … 下詔禁止 十七年 … 鱗龍 飛魚 斗牛 本在所禁 … 孝宗加意鉗束 … 然內臣驕恣已久 積習相沿 不能之也.”

56)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p.381.

57) 上揭書, p. 381.

「大明會典」, 卷 六, 志 六十一, 士庶巾服에서는 搭護로 기재되어 있다.

58)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p.381.

59) 「明史」, 卷 六十七 志 十六.

60) 「大明會典」, 卷 六十一, 志 三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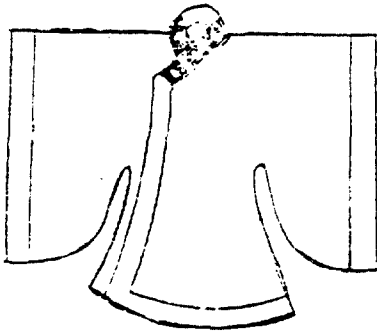
“凡命婦入內朝見君侯 在家見舅姑并夫及祭祀 則服禮服”

50) 上揭書, 卷 六十七 志 十三.

「大明會典」, 卷 六十一 志 三十, 三十一.

3. 襖의 文獻의 考察

1) 天子服에서는 袞冕服, 通天冠服, 皮弁服의 中單에서 襖이 나타난다. 皮弁服의 中單에 관하여 洪武 十六年에는 “...白羅中單敝領靑緣襖...”⁶¹⁾으로 敝領에 靑色 緣을 들렀는데, 永樂 三年에는 “...中單以素紗爲之 靑領標襖裾領織敝文十三...”⁶²⁾으로 옷깃, 袖口와 밑단에 靑色 緣을 들렀고 옷깃에 敝文 13개를 織成하였다<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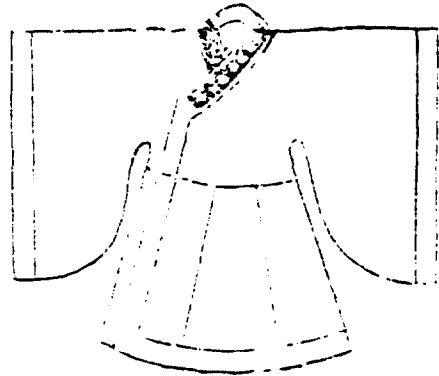


<圖 7> 袞服 中單
(出處: 『大明會典』, p.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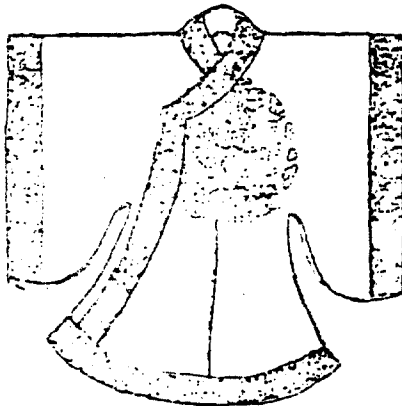
通天冠服의 中單에 관하여는 “...白紗內單皂領標襖裾...”⁶³⁾로 白紗內單의 옷깃, 袖口와 밑단에 검은색 緣을 들렀다.

皮弁服의 中單에 관하여 “...中單以素紗爲之 紅領標襖裾...領織敝文十三...”⁶⁴⁾으로 옷깃, 袖口와 밑단에 紅色 緣을 들렀고, 옷깃에 敝文 13개를 織成하였다<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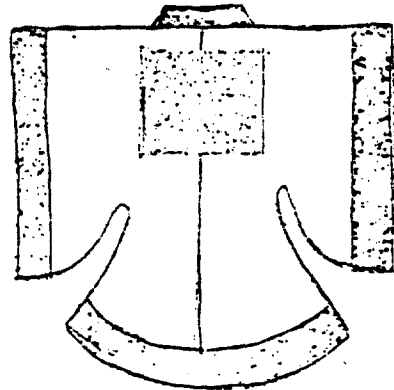
皇帝의 燕居服인 燕弁服은 옛 玄端의 制度에 의하여 만들었는데, 玄衣에 靑色 緣을 들렀다<圖 9>⁶⁵⁾.



<圖 8> 皮弁服 中單
(出處: 『大明會典』, p. 1024.)



前圖



後圖

<圖 9> 燕弁服
(出處: 『大明會典』, pp. 1030~1031.)

61) 『明史』, 卷 六十六, 志 一.

62)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二.

63)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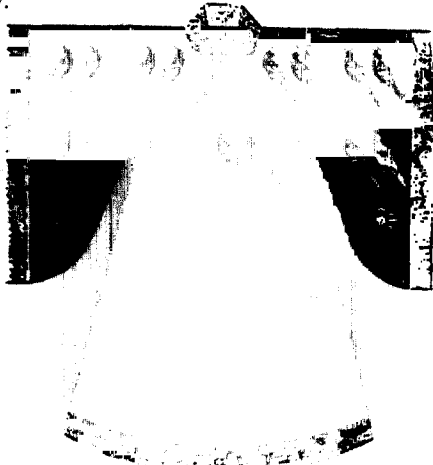
64) 『大明會典』, 卷 六十, 志 十二.

65) 『明史』, 卷 六十六 志 六.

『大明會典』, 卷 六十 志 三十七.

“服如古玄端之制身用玄 邊緣以靑”

2) 皇后服에서는 褱衣에 “…素紗中單 黻領朱羅標襖裾 …”⁶⁶⁾로 黻領의 素紗中單이 옷깃, 袖口와 밑단에 모두 朱色の 羅⁶⁷⁾으로 緣을 둘렀다고 되어 있고, 翟衣에 “翟衣…紅領標襖裾 織金雲龍文 中單 玉色紗爲之 紅領標襖裾 織黻文十三”⁶⁷⁾으로 翟衣의 옷깃, 袖口와 밑단을 紅色 바탕에 雲龍文을 織金한 緣으로 둘렀고 <圖 10> 中單을 玉色の 紗로 만들었는데 그 옷깃, 袖口와 밑단에 모두 紅色의 緣을 둘렀고 옷깃에 黻文 13개를 織成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常服인 緣襖襖子는 黃色바탕에 紅色의 緣을 두르고 彩色 雲龍文을 織金하였다⁶⁸⁾.



<圖 10> 翟衣

(出處: 『中國歷代服飾大觀』, p. 150.)

3) 皇妃服의 襖을 살펴보면 受冊·助祭·朝會에 입는 翟衣에 “…青衫中單黻領朱標襖裾 …”⁶⁹⁾로 翟衣 속에는 黻領의 青衫中單을 입었는데 그 옷깃, 袖口와 밑단에 모두 朱色の 羅⁷⁰⁾으로 緣을 둘렀다고 되어 있으며, 緣襖襖子는 青色 바탕에 紅色의 緣을 둘러 雲龍文을 織金하였다⁷⁰⁾.

4) 皇太子服의 襖을 살펴보면 陪祀天地·社稷宗廟·大朝會·受冊·納妃에 입는 衰服의 中單에 관하여 洪武 二十六年에는 “…白紗中單 黻領…”⁷¹⁾으로 되어 있고, 永樂 三年에는 “…中單 以素紗爲之 青領標襖裾 領織黻文 十二”⁷²⁾로 素紗로 된 中單의 옷깃, 袖口와 밑단에 青色 緣을 둘렀고 옷깃에 黻文 12개를 織成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朔望視朝·降詔

降香·進表·外國朝貢朝親 등의 禮式에 입는 皮弁服의 中單에 관하여 “…中單 以素紗爲之 …紅領標襖裾 領織黻文 十一…”⁷³⁾로 素紗로 된 中單의 옷깃, 袖口와 밑단에 紅色 緣을 둘렀고, 옷깃에 黻文 11개를 織成하였다고 되어 있다.

5) 皇太子妃服의 襖을 살펴보면 禮服인 翟衣의 옷깃, 袖口와 밑단에 모두 紅色 바탕에 雲鳳文을 織金한 緣을 둘렀고, 玉色の 紗로 만든 中單의 옷깃, 袖口와 밑단에 모두 紅色의 緣을 두르고 옷깃에 十一개의 黻文을 織成하였다⁷⁴⁾. 그리고 常服인 青色의 緣襖襖子는 옷깃·袖口와 밑단에 모두 彩色 雲鳳文을 織金한 紅色의 緣을 둘렀다⁷⁵⁾.

6) 親王服의 襖을 살펴보면 衰服의 中單에 관하여 洪武 二十六年에는 “…白紗中單 黻領青緣…”⁷⁶⁾으로 白紗로 된 中單의 黻領에 青色 緣을 둘렀다고 되어 있고, 永樂 三年에는 “中單 以素紗爲之 青領標襖裾 領織黻文 十一”⁷⁷⁾로 素紗로 된 中單의 옷깃, 袖口와 밑단에 青色 緣을 둘렀고, 옷깃에 黻文 11개를 織成하였다고 되어 있다.

皮弁服의 中單에 관하여는 “中單 以素紗爲之…紅領標襖裾 領織黻文 十一”⁷⁸⁾로 素紗로 된 中單의 옷깃, 袖口와 밑단에 紅色 緣을 둘렀고, 옷깃에 黻文 11개를 織成하였다고 되어 있다.

67) 上揭書, 卷 六十六 志 七.

68) 『大明會典』, 卷 六十 志 三十八.

“緣襖襖子 黃色 紅領標襖裾 皆織金采色雲龍文 紵絲紗羅隨用”

69) 『明史』, 卷 六十六 志 九.

70) 『大明會典』, 卷 六十 志 四十一.

“緣襖襖子 黃色 紅領標襖裾 織金雲龍文 紵絲紗羅隨用”

71) 『明史』, 卷 六十六 志 十.

72)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十一.

73) 上揭書, 卷 六十六 志 十一.

74) 『明史』, 卷 六十六 志 十二.

“翟衣青質 織翟文九等 間以小輪花 紅領標襖裾 織金雲龍文 中單 玉色紗爲之

紅領標襖裾 領織黻文 十一”

75) 『大明會典』, 卷 六十 志 四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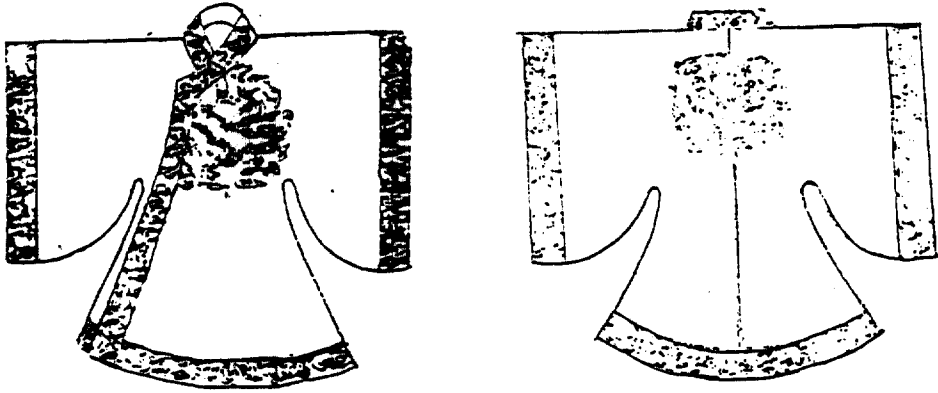
“緣襖襖子 青色 紅領標襖裾 織金采色雲龍文 紵絲紗羅隨用”

76) 上揭書, 卷 六十 志 五十一.

77) 上揭書, 卷 六十 志 五十二.

78) 上揭書, 卷 六十 志 五十三.

66) 『明史』, 卷 六十六 志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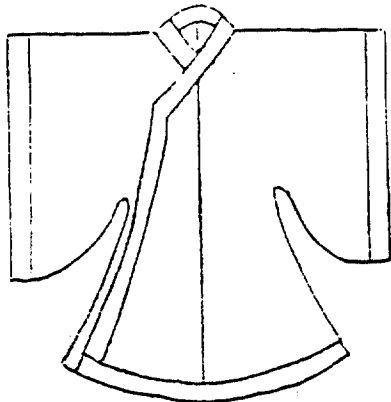


<圖 11> 保和冠服 (出處: 『大明會典』, pp. 1044~1045.)

保和冠服에 관하여는 “靑質靑緣 前後方龍補”⁷⁹⁾로靑色 바탕에靑色緣을 두르고 앞뒤에 각龍補 한 개씩을 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圖 11>.

7) 親王妃服의 襖을 살펴보면 洪武 三年에 禮服인 翟衣에 있어서 “...素紗中單 黻領朱標襖裾...”로 黻領의 素紗中單은 옷깃, 袖口와 밑단에 朱色의 緣으로 緣을 들렀다⁸⁰⁾.

8) 文武冠服의 襖을 살펴보면 朝服에 “赤羅衣 白紗中單 靑服領緣 赤羅裳靑緣 赤羅蔽膝”⁸¹⁾로 衣·裳과 中單에 모두靑色의 襖을 들렀다<圖 12>. 그리고 祭服에 “靑羅衣 白紗中單 俱皂領緣 赤羅裳 皂緣 赤羅蔽膝”⁸²⁾로 衣·裳과 中單에 모두 皂色의 襖을 들렀다.



<圖 12> 朝服 中單
(出處: 『大明會典』, p. 1055.)

文武官의 常服인 忠靜冠服은 深靑色의 紵絲紗羅로 三品 以上이면 雲文을 넣고, 四品 以下는 素色으로 着用하였는데 邊緣을 藍靑色으로 들렀고 服의 前後에 本等花樣의 補子로 장식하였다<圖 13>⁸³⁾.

9) 內命婦服의 襖을 살펴보면 洪武 元년에 禮服인 翟衣 속에 黻領의 素紗中單을 입는데 그 옷깃·袖口와 밑단에 모두 朱色의 緣으로 들렀다⁸⁴⁾.

10) 士庶 일반복식의 襖을 살펴보면 일반 서민의 복식에도 襖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明史 輿服志에 의하면 洪武 二十四年 士子의 巾服이 吏胥와 차별이 없으니 太祖가 工部에 命을 내려 士人의 巾服을 정하라고 하였는데 세번을 정하고 고치고 난 뒤에 마침내 襖衫으로 정하였으며, 이것은 玉色의 布絹으로 만들었는데, 寬袖에 皂色의 緣을 들렀다 <圖 14>⁸⁵⁾.

80) 『大明會典』, 卷 六十 志 六十.

81) 『明史』, 卷 六十七 志 二.

82) 上揭書, 卷 六十七 志 三.

83) 『明史』, 卷 六十七 志 七.

“服色用深靑 以紵絲紗羅爲之 三品以上雲 四品以下素 緣以藍靑 前後飾本等花樣 補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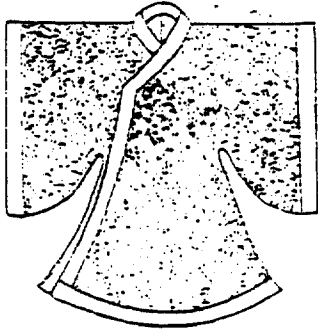
84) 上揭書, 卷 六十七 志 九.

“素紗中單 黻領朱標襖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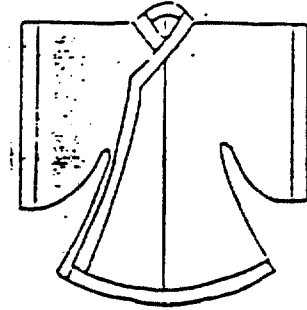
85) 上揭書, 卷 六十七 志 十六.

“二十四年 以士子巾服 無異吏胥宜甄別之 命工部 制式 以進太祖親視 凡三易及定 生員襖衫 用

79) 『明史』, 卷 六十六 志 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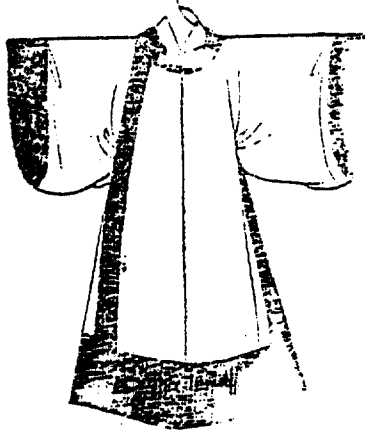


用雲前圖



用素前圖

<圖 13> 忠靜服 (出處: 『大明會典』, p. 1065.)



<圖 14> 襦衫

(出處: 『三才圖會(四)』, p.1546.)

4. 襟의 實證的 考察

『歷代諸侯像』중의 明孝恪皇后像<圖 15>에서 보면 文獻과 一致하여 翟衣의 옷깃, 袖口와 밑단을 紅色 바탕에 雲龍文을 織金한 緣으로 둘러쌌음을 알 수 있다.



<圖 15> 明孝恪皇后像

(出處: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420.)

明人이 그린 北京宮城圖 중의 官員像<圖 16>에서 보면 文獻과 一致하여 朝服의 赤羅衣·赤羅裳·赤羅蔽膝에 모두 靑色의 襟을 둘러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山西省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洪趨縣 城東村 普養初墓에서 出土된 明·清花人物 諸葛碗<圖 17>을 보면 문헌과 일치하여 두 文武官의 忠靜冠服에서 邊緣을 藍靑色으로 두른 襟을 찾을 수 있다.

明代 士庶人들은 直身을 입었는데, 江蘇揚州 出土 實物인 直身<圖 18>을 보면 盤領, 右衽長袖에 靑色의 緣을 둘러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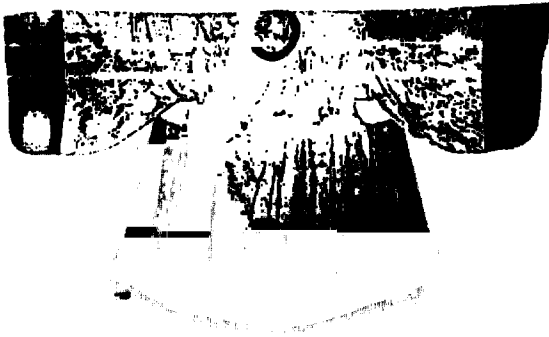
<圖 16> 明人畫 北京宮城圖 中 官員像

(出處: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彩色圖 22)

玉色布絹爲之 寬袖阜緣 阜條 軟巾垂帶”



<圖 17> 明·青花人物諸葛碗
(出處: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p.431.)



<圖 18> 直身
(出處: 「中國歷代服飾大觀」, p.159.)

5. 襖의 特徵

明王朝時代의 裝飾에 나타난 襖의 特徵으로는

첫째, 그 以前時代의 服飾에 보였던 襖보다 單調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襖의 위치가 옷깃·袖口와 밑단에 固定되어 있고, 襖의 幅도 多樣하지 아니하고 劃一的이다. 襖의 紋樣도 駝紋樣·雲龍紋·雲鳳紋 등에 限定되어 있으며, 襖의 色相에 있어서도 天子服에는 靑·黑·紅, 皇后服과 皇妃服에는 朱·紅, 皇太子服과 親王服에는 靑·紅, 皇太子妃服에는 紅, 親王妃服과 內命婦服에는 朱, 文武官服에는 靑·黑·藍靑, 士庶服에는 黑으로 되어 있어 靑·黑·紅·朱 등으로 제한되

어 있다.

둘째, 明王朝時代의 襖은 그 以前의 王朝와 달리 服色과의 異色對比 보다는 同色對比 選好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皇帝의 燕弁服에 있어 玄衣에 靑色 緣을 들렀고, 親王服의 保和冠服에 있어 靑質에 靑色緣을 들렀으며, 文武官의 忠靜冠服에 있어 深靑色の 紵絲紗羅에 邊緣을 藍靑色으로 들렀다.

위와 같이 明王朝時代의 襖이 그 以前時代의 襖보다 단조롭게 되고, 그 以前時代의 襖과 달리 服色과의 同色對比를 선호하게 된 배경은 明王朝時代의 정치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明太祖가 律令의 반포와 官制의 改革을 통한 皇帝權力의 強化에 중점을 두어 強力한 中央集權體制를 指向한 이래 明王朝는 그 以前의 王朝와 달리 專制政治가 매우 強力하게 施行되었다.

이러한 專制政治의 實現은 服飾制度에 反映되어 黃色은 皇帝만이 사용하는 色으로 고정되었고, 龍文은 皇族만이 사용하는 紋樣으로 확정되었으며, 等級의 差別化를 표시하는 方法으로 服色보다는 服裝에서의 紋樣이 浮刻되었다. 唐·宋時代에서는 服色으로 等級을 표시하였으나 服色이 混用 또는 僭用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막기위해 禁令이 자주 반복되어야만 하였는데, 이에 等級을 表示하는 服色을 강조하기위해 領·襟·裾 등 옷의 가장자리를 同色보다는 異色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그러나 明代에 있어서는 等級을 보다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쉽게 判別할 수 있는 紋樣을 가슴과 등에 부착시키는 補, 衣服에의 紋樣織金과 刺繡가 강조되었다. 따라서 明代에서는 領·襟·裾의 襖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보다는 補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襖의 形態·色相·紋樣이 單純化되고 服色과의 同色對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IV. 結 論

中國服飾에 있어서 襖은 殷王朝시대부터 이미 옷깃·袖口· 밑단 등에 나타나는데, 秦王朝를 지나 漢王朝에 이르러 襖의 형태가 二重襖·多重襖·V형 옷깃 등 다양하게 등장

하고 襖의 幅도 넓어지며 襖의 色相도 服色과의 對比色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漢王朝시대의 襖은 中國服飾 襖의 原形을 보여준다.

唐王朝시대에 이르러서는 襖이 더욱 발전하여 襖의 위치가 옷깃·袖口·밑단 이외에도 圓領·半臂·翻領 등에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襖의 幅도 간단한 襖에서부터 상당한 넓이에 걸쳐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襖의 문양도 龍·山·火·粉米 등 다양하고 정교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明王朝 시대에 이르러 그 以前 시대의 服飾에 나타난 襖보다 形態, 紋樣, 色相等에 있어서 단조롭게 되었다. 襖의 위치가 옷깃·袖口와 밑단에 고정되어 있고, 襖의 幅도 唐王朝時代의 襖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襖의 문양에 있어서도 獸紋樣·雲龍文·雲鳳文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襖의 색상도 靑·黑·紅·朱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明王朝 시대의 襖은 그 以前 시대와 달리 服色과의 異色 對比보다는 同色 對比가 選好되었다.

위와 같이 明王朝 시대에 이르러 襖의 형태·색상·문양이 단순화되고 服色과의 同色 對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가슴과 등에 부착시키는 補, 衣服에의 紋樣織金 및 刺繡등이 두드러지게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襖이 단조롭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明王朝時代에 이르러 補가 두드러지게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襖이 단조롭게 되었다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明史」
 「大明集禮」
 「大明會典」
 「明會要」
 「三才圖會」
 「中國歷代服飾大觀」, 百齡出版, 1984.
 「中國服飾五千年」, 學林出版, 1986.
 「歷代婦女袍服考實」, 中國襖袍研究會, 1975.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古代, 中世編, 文化出版局, 1979.
 小杉一雄, 「中國文樣史の研究」, 新樹出版, 1973.

- 沈宗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1967.
 章榮慧 主編, 「中華民族服飾文化」, 紡織工業出版, 1992.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中國服飾大辭典編委會, 「中國服飾大辭典」, 山西出版, 1992.
 中國通史講義 協作, 「中國通史講義」, 浙江人民出版社, 1983.
 華梅, 「中國服裝史」, 天津人民出版, 1989.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1979.
 박성실 譯, 「中國服飾史」, 경춘사, 1992.
 신용철 外, 「東洋의 歷史와 文化」, 탐구당, 1993.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大出版部, 1974.
 劉淑津, 「明代服飾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柳孝順, 「古代服飾에 나타난 襖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李相恩, 「古代 韓·中 服飾의 襖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